

# KBO 가을야구 내달 1일 개막

연장전은 15회까지  
한국시리즈 모두 고척돔서

2021년 KBO리그 최강팀을 가릴 포스트시즌이 11월 1일 개막한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28일 오후 포스트시즌 일정을 발표했다. 가을야구는 내달 1일 정규시즌 4위와 5위의 와일드카드 결정전 1차전으로 시작을 알린다. 4위팀은 최대 2경기 중 한 번이라도 승리 혹은 무승부를 기록하면 준플레이오프에 나갈 수 있다. 5위팀은 반드시 두 경기를 다 잡아야 다음 단계 진출이 가능하다. 경기는 모두 4위 팀 홈 구장에서 열린다. 준플레이오프와 플레이오프는 3전2선승제로 펼쳐진다. 5전3선승제로 치러지던 플레이오프는 음주 파동으로 인한 리그 중단 등을 감안해 3전2선승제로 바뀌었다. 1989년 첫 선을 보인 이래 5전3선승제와 7전4선승제를 오갔던 플레이오프가 3전2선승제로 돌아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7전4선승제의 한국시리즈는 14일 시작한다. 15일이 포함된 시리즈는 고척돔에서 중립 경기로 진행된다는 사전 결정에 따라 한국시리즈 전 경기 장소는 고척돔으로 확정됐다. 와일드카드 결정전, 준플레이오프, 플레이오프 및 한국시리즈 사이에 최소 하루는 이동일을 보장한다. 경기가 우천 등으로 연기될 경우 다음날로 순연되며, 정해진 포스트시즌 일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때에는 예정대로 경기를 갖는다. 포스트시즌에서는 일시 폐지했던 연장전이 부활한다. 잦은 무승부로 흥미를 반감했던 후반기를 떠올리면 반가운 소식이다. 연장전은 최대 15회까지 이어진다. 이때까지 승부를 가리지 않으면 무승부로 처리한다. 비디오 판독은 구단당 2번이 주어지며 모두 번복될 경우 해당 구단에 1번의 추가 기회를 부여한다. 연장전 돌입시에는 1번씩 추가로 비디오 판독을 사용할 수 있다. 코로나19 예비 엔트리 제도도 운영한다. 엔트리 등록 선수가 코로나19 확진, 증상 의심 및 확진자 접촉이 발생할 경우 음성판정을 받거나 필요한 격리를 마칠 때까지 대체 선수를 엔트리에 등록할 수 있다. 구단은 각 시리즈 개시 1일 전 감독 1명, 코치 9명, 선수 30명(출장 28명)으로 구성된 엔트리를 제출할 때 별도로 코로나19 예비 엔트리를 내야한다. 예비 엔트리 선수가 출전할 경우 기존 포스트시즌 엔트리의 어느 선수를 대체하는지 지정해야 하며, 엔트리에서 말소된 선수가 복귀할 시 대체 등록 선수는 예비 엔트리로 이동한다. 예비 엔트리는 2021년 포스트시즌 출장 자격을 갖춘 구단 소속 선수를 대상으로 한다. 출장 자격을 갖춘 선수단 전체가 코로나19로 출전이 불가할 경우 예비 엔트리는 구단 소속 선수 전체로 범위가 넓어진다. 경기 중 보건 당국의 구장내 확진자 동선 확인으로 인해 구장을 폐쇄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경기 중단 후 서스펜디드 경기로 진행된다. 방역을 위한 경기장 폐쇄 등 부득이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제3구장(포스트시즌 진출팀 중)을 활용하기로 했다. 한편 관객 입장 취식 응원 진행 등 세부 운영 방안은 추후 발표할 예정이다. /뉴스



바이에른 뮌헨은 28일(한국시간) 독일 뮌헨글라트바흐의 보루시아 파르크에서 열린 2021~2022시즌 독일축구협회(DFB) 포칼 32강전에서 뮌헨글라트바흐에 0-5 대패를 당했다.

## 뮌헨·바르사 등 강호들 줄줄이 패배... 유럽 축구, 이변의 날

뮌헨, 뮌헨글라트바흐에 0-5로 대패  
바르셀로나·유벤투스, 리그에서 저

바이에른 뮌헨(독일), 맨체스터 시티(잉글랜드), FC바르셀로나(스페인) 등 유럽 축구를 대표하는 명문 클럽들이 약속이던 한 듯 일제히 자존심을 구겼다. 이변의 날이다. 바이에른 뮌헨은 28일(한국시간) 독일 뮌헨글라트바흐의 보루시아 파르크에서 열린 2021~2022시즌 독일축구협회(DFB) 포칼 32강전에서 뮌헨글라트바흐에 0-5 대패를 당했다. 분데스리가에서 최근 9회 연속 우승을 차지

한 바이에른 뮌헨은 이번 시즌에도 단독 선두를 달리고 있는 최강 클럽이다. 현지에선 충격이라는 반응이다. 패할 순 있지만 5골 차이는 바이에른 뮌헨의 전력을 감안할 때, 납득이 쉽지 않은 스코어다. 특히 상대였던 뮌헨글라트바흐는 분데스리가에서 18개 구단 중 12위에 머물러 있는 중하위권 팀이다. 바이에른 뮌헨은 1978년 12월 뒤셀도르프에 1-7로 진 이후 43년 만에 가장 큰 점수 차이로 패했다. 기록적인 패배다. 스페인 라리가의 명문 FC바르셀로나는 스페인 마드리드의 에스타디오 데 바예카스에서

벌어진 라요 바예카노와의 2021~2022 라리가 10라운드에서 0-1로 패했다. 바르셀로나가 바예카노에 진 건 2002년 12월 이후 무려 19년 만이다. 레알 마드리드와 함께 라리가를 대표하는 명문 클럽으로 불리는 바르셀로나는 이번 시즌 리그에서 10라운드까지 4승3무3패(승점 15)에 그쳐 20개 구단 중 9위에 머물러 있다. 2관 공적수 리오넬 메시가 프랑스 리그 1파리 생제르맹(PSG)으로 떠난 후, 전력이크게 불안해졌다는 평가다. 바르셀로나는 이날 패배 후, 로날도 쿠안 감독의 해임을 발표했다. /뉴스



태권도진흥재단은 28일 K타이거즈 제로를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 “태권도의 멋 알리겠다”

태권도진흥재단, 'K타이거즈 제로' 홍보대사로 위촉

태권도진흥재단(이사장 오응환)은 28일 K타이거즈 제로를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태권도의 일여현에서 열린 K타이거즈 제로 홍보대사 위촉식에는 오응환 이사장 등 태권도진흥재단 관계자와 K타이거즈 안창범 대표, K타이거즈 제로 장준희·태기·변현민 등 멤버가 참석했다. 홍보대사로 위촉된 K타이거즈 제로는 앞으로 1년간 다양한 태권도 콘텐츠 제작 등 국가 태권도 활성화를 위한 태권도진흥재단의 노력에 동참할 계획이다. K타이거즈 제로는 지난해에도 태권도진흥재단 홍보대사로 활동하며 나태주와 함께하는 힘내라 태권도! 코로나19 극복 응원!과 K타이거즈 제로와 함께 한 태권 퀴즈쇼' 등 다양한 콘텐츠에 참여하며 코로나19 극복과 도장 활성화를 위해 태권도진

흥재단과 함께 해 왔다. K타이거즈 제로 리더인 장준희 홍보대사는 “태권도진흥재단과 함께 국가 태권도 발전에 함께 할 수 있어 기쁘다”라며 “태권도의 멋을 알리고 태권도를 통해 국민들에게 힘이 되어 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태권도진흥재단 오응환 이사장은 “K타이거즈 제로가 태권도를 대표하는 아이돌스타로서 태권도 발전과 홍보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라며 “작년에 이어 국가 태권도 활성화를 위해 태권도진흥재단과 함께 노력해 나가자”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홍보대사 위촉식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행사장 내부 방역을 비롯해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을 준수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무주=전문선 기자

## 벤투호, 내달 개최 카타르월드컵 최종예선 소집명단 발표

10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을 노리는 한국 축구가 2022 카타르월드컵 본선으로 가는 길목에서 반환점을 앞두고 있다. 대한축구협회는 11월에 열리는 카타르월드컵 아시아 최종예선 5·6차전을 앞두고 다음달 1일 소집 명단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28일 전했다. 벤투호는 다음달 11일 고양종합운동장에서 아랍에미리트(UAE)와 5차전을 치르고, 16일 이라크와 원정 6차전을 갖는다. 이라크전 장소는 정해지지 않았다. 이라크 내 불안한 정세 때문에 제국에서 열릴 예정으로 카타르 도하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A조에 속한 한국은 2승2무(승점 8)로 이란(3승1무 승점 10)에 이어 2위를 달리고 있다. 최종예선 반환점이 될 11월 2연전이 3위 레

반(1승2무 승점 5)을 비롯한 하위권 팀들과 승점 차이를 벌일 수 있는 기회다. 파울루 벤투는 지난 12일 이란 원정에서 1-1로 비긴 뒤, “이란을 상대로 승점 1점을 추가하며 8점이 됐다. 좋은 방향으로 가는 것 같다”고 했다. 한국과 이란의 2강 체제가 굳히면서 조기에 월드컵 본선행을 확정하기 위해선 착실하게 승점을 쌓는 게 중요하다. 조 2위까지 월드컵 본선에 직행한다. 3위는 B조 3위와 겨루고 대륙별 플레이오프까지 거쳐야 한다. UAE, 이라크와 2연전으로 올해 일정은 모두 끝난다. 내년 1월27일 레바논과 7차전, 2월1일 시리아와 8차전으로 최종예선 일정이 재개된다. 두 경기 모두 원정이다. /뉴스

축! 전주매일 창간

### 100% 우리농산물

진안고원에서 생산한 엄선된 고추와 표고버섯 등 천연조미료만을 사용하여 전라북도 전통의 맛을 듬뿍 담아 고객 만족을 최우선 가치로 정성을 다하여 신선하고 정갈한 김치의 맛을 제공합니다.

화학조미료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숙성시켜 드시면 더욱 맛있습니다.

드셔보시면 확실히 다릅니다.

# 名品 마이산 김치

마이산 배김치

마이산 짬두기

마이산 파김치

마이산 갯김치

마이산 오이소박이김치 (주문생산)

마이산 낙물김치 (주문생산)

마이산 고들배기

**부귀농협마이산김치가공공장**

무료전화 080-433-2727 대표전화 1588-2908 문의전화 432-5856, 5359, 433-5856, 5359